

일제하 성세빈의 민족운동

이현호(우신고등학교)

차례

1. 머리말
2. 동구지역 민족운동의 배경
3. 성세빈의 가계와 민족운동
 - 1) 가계와 성장과정
 - 2) 민족운동 활동
4. 맺음말

1. 머리말

일제의 폭압적인 식민통치가 끝나고 우리 민족이 독립과 해방을 맞이한지 어언 65년이 되었다. 식민통치 36년의 두 배쯤 되는 시간이 흐른 것이다. 식민통치 기간 동안 끊이지 않고 이어졌던 민족운동은 지역을 넘어서 나라 곳곳에서, 나라 곳곳을 넘어서 우리 동포가 사는 모든 곳에서 펼쳐졌다. 그러나 여전히 밝혀지지 않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민족운동가와 민족운동이 많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본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차원에서 울산 동구지역의 대표적인 민족운동가로 일컬어지는 성세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본 글은 성세빈이라는 민족운동가를 특별히 강조하거나 과장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있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 성세빈의 활동과 그 업적을 되새겨 보고자 한다.

먼저 성세빈의 주된 활동 지역이었던 동구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통해 민족운동의 배경을 간략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성세빈의 가계와 성장과정을 살펴본 뒤 그의 구체적인 민족운동 관련 활동을 정리하고자 한다. 본 글은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증언과 구술, 각종 신문과 회고록 그리고 관련 자료를 통해 작성되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2. 동구지역 민족운동의 배경

동구지역은 조선 후기 울산도호부 관할의 16면(面) 가운데 하나인 동면(東面)으로, 종6품의 감목관이 관할권을 행사한 울산목장이 있었던 지역이었다. 동면의 전체 면적 중 농경지는 16.87%에 불과한 산지형으로 삼면이 해안에 둘러 쌓인 곳이다. 따라서 발달한 평야지대가 거의 없어 소수의 중소지주와 자작농 그리고 소작농과 빈농이 많은 곳이었다. 이러한 불

리한 지형조건과 절대적으로 부족한 농경지 보유는 부업이나 겸업으로서 어업을 발달시켰다.¹⁾

실제로 동면의 9개 리(里) 중 동부리, 서부리, 화정리를 제외한 6개 리는 해안과 접해 어업에 종사하는 반농반어촌이 대부분이었다.²⁾ 이 중 가장 어업이 발달한 곳은 일산리의 일산진(일산하리)이었다. 1909년 당시 총 호수 49호(208인) 가운데 어업자가 41호(186인)에 이르고 있었다.³⁾ 일산진의 어업이 소규모이지만 조선인 시장을 향한 어업 활동을 활발하게 행하는 곳이었다면 바로 옆인 방어진의 일인 어업은 식민자로서 특권을 가지고 일본 시장을 향한 대형어업을 전개하고 있었다.⁴⁾ 그럼 일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방어진을 그들의 주요한 어업근거지로 삼게 되었는지 그리고 동면지역 사회와 경제에 끼친 변화와 영향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울산지역 근해는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곳이어서 일찍부터 어업이 발달하였다. 특히 울산군 연해는 미역, 김, 우무, 돛, 우뭇가사리와 같은 일명 울산천초(蔚山天草)의 생산지로 명성이 높은 곳이었다. 한말 국가에 어세를 바치는 어기고(漁基庫)나 객암세 및 염세의 액수도 상당한 것이어서 그 납세액이 경남에서도 수위를 차지할 정도였다. 동면지역에도 울산목장 소유의 객암이 6개소가 있었고, 어장 및 어기(漁基)도 상당수가 있었다.⁵⁾

이런 울산 근해의 호혜의 어장에 주목하고 있던 일인 어업자들은 이미 1903년경부터 통어어업을 넘어서서 울산지역으로 이주하여 울산 근해의 어족을 수탈하기 시작하였다.⁶⁾ 일인 어업자들이 울산에 이주하기 전의 울산 근해의 어항은 소규모 어촌에 불과하였다.⁷⁾ 울산지역 일인 어업자들의 집단 거주지는 방어진, 장생포, 정자, 신암리, 세죽리 등이었다. 일인 어업자들은 190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한국어업법에 의해 어업권이 창설돼 면허만 있으면 어업, 양식업 등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게 됨으로써⁸⁾ 울산지역 연안 곳곳의 어장을 매매 또는 합법을 가장하여 강탈하여 갔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일인 어업자들의 이주가 급증하여 방어진은 사실상 일본인들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가운데 동면지역 일인 이주어촌을 보면 다음의 <표 1>⁹⁾과 같다.

1) 이현호, 「1920년대 울산 東面지역의 사회운동」, 『지역과 역사』 제20호, 2007. 이하 관련 내용은 각주 생략.

2) 農商工部水産局, 『韓國水産誌』 제2집, 1910, 497-503쪽.

3) 農商工部水産局, 위의 책, 부록, 37쪽.

4) 神谷丹路, 「日本漁民の朝鮮への植民過程をたどる-岡山縣和氣郡日生漁民を中心として」 『靑丘學術論集』 제13집, 1998, 107-108쪽.

5) 양상현, 『대한제국기 내장원 재정관리 연구』, 서울대박사논문, 1997, 264-287쪽. 이종길, 『朝鮮後期 漁村社會의 所有關係에 관한 研究』, 서울대박사논문, 1997, 85쪽.

6) 조선총독부, 『朝鮮の聚落』 중편, 1933, 107-108쪽. 여박동, 『일제의 조선어업지배와 이주어촌 형성』, 보고서, 2002, 216-221쪽. 방어진에 처음 진출한 일본인은 岡山縣 어부들이었는데 방어진 근해의 삼치와 고등어 어장이 유망하다 하여 어획 근거지로 진출하였다.

7) 1909년경 방어진의 조선인 호수는 39호(111인)로 그 가운데 어업자는 9호(27인)에 불과하였다. ; 農商工部水産局, 위의 책, 부록, 37쪽.

8) 이현희, 「일제침략하 한국어민의 어권수호운동」, 『연구논문집』 V.8 No1, 1975, 171쪽.

9) 金秀姬, 『朝鮮植民地漁業と日本人漁業移民』, 東京經濟大 박사논문, 1996, 99쪽에서 재인용.

〈표 1〉 동면지역 일인 이주어촌 이주자 추이(단위:戶, 人)

이주지	1911년		1915년		1921년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방어진	86	285	208	755	496	3,073
전하리	12	42			9	29
일산진	5	30			9	29

〈표 1〉에서 보듯이 동면지역에서 일인들에 의해 대표적인 식민도시로 성장한 곳은 방어진이었다.¹⁰⁾ 1903년부터 자유이주어촌으로 일인의 이주가 시작돼서 1945년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동해안의 대표적인 어항이자 식민도시의 전형을 보여준 방어진은 1930년대 후반이 되면 읍세가 울산읍과 거의 대등하거나 오히려 능가할 정도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의 〈표 2〉와 같다.¹¹⁾

〈표 2〉 일제시대 울산면과 동면 인구 증감(단위:名)

명 면	1909		1916		1919		1930		1935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조선인	일본인
울산	11,076	257	10,494	540	10,798	425	14,063	789	13,789	935
동	4,298	613	6,379	1,305	6,809	2,411	11,592	1,674	12,066	1,635

특히 방어진은 일제시대 일인 수산업을 대표하는 회사인 임겸조(林兼組)의 어업근거지로 유명했다.¹²⁾ 1924년에 임겸어업주식회사(자본금 3백만엔)가 방어진을 본점으로 설립되면서 전조선의 어업을 직영 총괄하였다. 1925년에는 냉장, 운반 그리고 기타 회사 모두를 합병해서 시모노세키를 본점으로 하는 주식회사 임겸상점(자본금 1천만엔)이라는 거대 수산회사가 되었다. 따라서 방어진은 임겸 소유의 정치망 어업, 임겸상점 방어진 지점, 계통조림공장, 방어진철공조선, 정어리 정유공장 등 계속 이어진 임겸의 자본 투자로 마치 임겸의 직할 소도시를 형성한 것과 같았다.

방어진에 조선인들이 어업노동자로 본격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 초 어선의 동력화가 이뤄지면서부터이다. 어선의 동력화로 일본인 이주자의 숫자는 점차 감소하게 되었지만, 임금이 싼 조선인은 대거 어부, 공장노동자, 운반업, 기타 잡역부로 고용되면서 그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를 방어진 거주 인구의 추이를 통해 살펴보면 〈표 3〉과 같다.¹³⁾

10) 1918년 현재 전당포 4, 목욕탕 4, 이발소 5, 雇人주선업 1, 여관 2, 음식점 16, 賣藥업 8, 유곽 19, 의원 3, 극장 1, 유흥장 5개소 등이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들 업소는 거의 일인들이 경영하였다. ; 『조선시보』, 1918. 9. 2.
 11) 출전:1909-農商工部水産局, 『韓國水産誌』 제2집, 1910. 1916-울산군, 『蔚山案内』, 1917. 1919-울산군, 『蔚山郡郡勢一般』, 1919. 1930-조선총독부, 『朝鮮國勢調査報告』 제7권 경상남도, 1933. 1935-울산군, 『蔚山郡郡勢一般』, 1935.
 12) 임겸조는 뒤에 일본 수산계에 군림하는 3대 수산회사의 하나인 大洋漁業(現 マルハ漁業)으로 발전했다. 창업주 中部幾次郎이 전남 나로도에서 방어진을 근거지로 삼고 이주한 것은 1915년이였다. ; 조선공로자명감간행회, 『朝鮮功勞者銘鑑』, 민중시론사, 1935, 633-634쪽. 神谷丹路, 앞의 글, 96-99쪽.
 13) 출전:1909-農商工部水産局, 『韓國水産誌』 제2집, 1910 ; 1916-울산군, 『蔚山案内』, 1917 ; 1921-경상남도,

<표 3> 일제시대 방어진 인구 추이(단위:名)

연도\국적	조선인	일본인
1909	111	613
1916	689	1,260
1921	2,040	3,073
1926	3,044	1,715
1936	3,993	1,420

<표 2>와 <표 3>을 보면 1920년 이후에 방어진의 조선인 숫자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어선의 동력화라는 요인과 더불어 지주소작제의 강화에 따른 반프로화된 농민들 중 상당수가 어업이 발달한 방어진 등으로 이동해서 나타난 현상이다. 방어진으로의 어업관련 조선인 노동자의 증가는 동면지역 민족운동가들에게 이들에 대한 조직화, 의식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게 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민족적 각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계급적 차원에서의 활동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동면지역 민족운동가들이 분화되는 즉 사회주의 사회운동과 부르조아민족주의적 운동으로 나뉘게 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한편 일인 어업자들의 이주어업과 어장 침탈로 인한 울산지역 어민들과의 충돌은 1910년 국권피탈 이전부터 일어났었다.¹⁴⁾ 특히 동면지역 어촌에서 행한 어법은 일인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뿐더러 피해를 쉽게 입는 것들이었다. 해안에서 사용한 온분기망(溫焚寄網)은 일인들의 온지예망(溫地曳網)과 충돌을 하였고, 바다에서는 대도어망(大刀魚網), 잡어연승(雜魚延繩)이었는데 일인들의 트롤어선에 쉽게 파손을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또한 해조류 채취에서 일인들의 진출은 어민들에게 커다란 위기의식을 심어주었다.¹⁵⁾

이에 울산지역 어민들은 일인 어민들이 도항하여 해조류를 불법 채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찍부터 어업조합을 설립¹⁶⁾하였는데, 어업권의 획득과 대부를 통해 조합원의 어업에 관한 공동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¹⁷⁾ 그런데 어민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조직된 어업조합이 어민들의 착취기관으로 변해 투쟁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즉 어획물공동판매에서 과다한 수수료만 착취하는 것, 높은 급료의 일인 전무이사를 두고 있는 것 등이 문제가 되었다. 또한 일인들의 불법적인 수조망 어업으로 어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어업조합은 책임회피로 일관하여 어민들의 격분을 사기도 하였다. 심지어 충돌로 인하여 생명

『慶尙南道に於ける移住漁村』, 1921 ; 1926-『매일신보』, 1926. 11. 28 ; 1936-경상남도, 『慶尙南道道勢一覽』, 1937.

14) 동면 일산진에서는 일인 어업자들과의 충돌로 여러 명이 다치고 수십 여 명의 우리 어민들만 경찰서에 체포되었다. ; 『대한매일신보』, 1910. 7. 26, 28. 이를 보도한 당시 신문기사의 제목은 매우 시사적이다. 제목은 「기막혀 죽겠네」이다.

15) 울산 및 동면지역 앞바다에서의 일인들의 불법적인 어장 침탈은 일상적인 것이었다. ; 『경남일보』, 1912. 2. 11. 『신한민보』, 1912. 7. 1. 『조선일보』, 1926. 4. 11. 『동아일보』, 1933. 2. 27.

16) 『매일신보』, 1913. 5. 7. 울산군, 『蔚山案内』, 1917, 45쪽. 박구병, 「漁業權制度和 沿岸漁場所有·利用形態의 變遷에 關한 研究」 『부산수대논문집 30』, 1983, 26쪽.

17) 동면지역의 어업조합은 동·하상어업조합으로 시작되었는데 조합의 첫 위치는 전하리였다. 조합장은 오태진, 이사는 유찬평, 감사는 이득우, 조합원은 조선인으로만 구성되었는데 388인이었다. ; 울산군, 위의 책, 61-62쪽. 이후 조합은 방어진으로 이전하여 동면어업조합으로, 1930년대부터는 방어진어업조합으로 개칭되었고 조합장은 김두현, 조합원은 일인을 포함하여 1,000여 명에 이르렀다.

에 위협과 공포를 느낄 정도로 대공황에 빠졌는데 특히 일산리의 피해가 가장 심했다.¹⁸⁾

그러나 조선인의 어업은 어로방법이나 사용 어구 등에서 일인 어업자들의 근대식 어업에 비교가 되지 않는 소규모 어업에 불과하였다. 일인보다 그나마 우월한 부분은 김, 우무, 미역, 돓과 같은 해초류 정도였고 연근해의 어류는 거의 일인 어업자들의 독차지였다.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조선인이 3,596명, 일인이 685명이었던 1916년도의 어획고를 살펴보면, 전체 어획고 887,064원 가운데 일인 어업자들이 664,727원을 차지하여 조선인은 일인의 1/4에 불과하였다.¹⁹⁾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5배나 되었지만 어획고는 그 반대였던 걸 보면 사실상 울산지역의 어업은 일인들이 독점하고 있었다. 결국 일인과의 어업에서의 경쟁과 충돌은 동면지역 어민들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민족 의식을 각성시키는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3. 성세빈의 가계와 민족운동

1) 성세빈의 가계와 성장과정

일제시대 울산 동면지역의 민족운동에서 가장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사람은 成世斌(1893-1938)이다. 지금도 사립 보성학교 졸업생들은 성세빈을 동면지역 최고의 선각자로 꼽고 있다.²⁰⁾ 따라서 성세빈을 통해서 동면지역 민족운동의 변천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해야만 성세빈이 설립한 사립 보성학교의 변천과 위상 그리고 의의가 동면지역 민족운동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했는지 더욱 명확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성세빈은 1893년 2월 22일 울산군 동면 일산리 40번호(일산동 213번지)에서 태어났다. 본관은 창녕 성씨로 조부는 증통정대부 호조참판 성영술(成永述:1818-1884)이고 조모는 증숙부인 홍단순(洪丹順:1843-1919)이다. 조부 성영술은 조선 말기에 부패정치를 비판하고 하야한 후 동래 온천으로 은둔하여 그곳에서 사망하였다고 한다. 조부의 장남인 부친 성수원(成水源:1864-1936)과 모친 한월심(韓月心:1869-1947)은 2남 4녀를 두었는데 그 중 성세빈은 장남으로 태어났다. 울산군 동면 일산리로 이주한 것은 조부가 사망한 뒤였다고 한다. 부친은 정3품 중추원 의관, 모친은 숙부인이었다고 한다.²¹⁾

그런데 부친이 동래에서 일산리로 이주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후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일산리로 이주한 후 멀리 전라도 지역까지 거래를 하는 상업활동(해산물 거래)을 통해 동면 제1 갑부로 불렸다고 한다.²²⁾ 거주지인 213번지는 일명 일산하리(일산진)에

18) 『동아일보』, 1926. 1. 11. 『조선일보』, 1926. 4. 11.

19) 울산군, 앞의 책, 39-40쪽.

20) 이러한 평가는 동면지역에 대한 증언채록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것이었다.

21) 성세빈의 『호적대장』 및 가계전승의 『昌寧成氏世譜』, 성덕영, 『成氏系圖』, 1997 참조. 그런데 『세보』와 『계도』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 『세보』에는 조부가 울산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계도』에는 동래에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일단 『계도』를 따른다. 한편 성씨 집안에서는 성세빈, 성세룡 형제에 대한 자료를 모아 책자를 발간하였다(日成會, 『海松이 비바람에 시달려도』, 청학, 1997).

22) 성세빈의 조카 성의영과 손자 성낙진의 증언에 의하면 우뭇가사리 등 일명 蔚山天草를 정자에서 방어진지역까지 채취하여 판매하였다고 한다. 우뭇가사리를 이용하여 목을 만들거나 석회와 섞어 건축재료로 사용하였다

있는데 이 마을은 한말에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거주자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었다.²³⁾ 따라서 부친 성수원대에 어업 및 수산업과 관련된 상업활동으로 부를 축적한 것으로 보이거나 구체적이지 않다.

성수원은 성동실(洞首)네로 불리었는데 1909년 사립 보성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의연 모집에서 가장 많은 의연금을 낸 것을 보면 일산리 주변 동리에서 상당한 재력을 소유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1912년에 조사된 『울산군 동면 토지조사부』에 근거하면 자작농급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토지소유 규모는 거주지인 일산하리에서 제일 많은 토지소유자에 해당하였다.²⁴⁾ 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는 성세빈의 동생인 성세룡(成世隆:1904-1959)의 경성제2고보(현 경북고) 학생기록부에 부친의 재산이 2백만엔이라고 되어 있다.²⁵⁾

성세빈은 어렸을 때 서당에서 한학을 배웠는데 실력이 출중하였다고 한다. 추론이지만 17세 때인 1909년에 설립된 사립 보성학교에 다니면서 근대적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부친인 성수원이 사립 보성학교 설립 때 가장 많은 의연금을 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관련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하기가 어렵다.²⁶⁾

한편 성세빈의 10대 때의 성장 과정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어업과 관련된 일본인과의 충돌이었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국권피탈 이전부터 울산지역에서는 일인어업자들과의 충돌이 있었고, 특히 동면 일산진에서는 그들과의 충돌로 부상자가 여러 발생하고 수십 명이 경찰서에 체포되었다는 당시 신문보도가 주목된다. 이후에도 울산 및 동면 지역 앞바다에서의 일인들의 불법적인 어장 침탈은 일상적인 것이었다. 일인들이 발동기를 단 트롤어선으로 방어진 앞바다의 어장을 남획함으로써 민심이 흉흉해지고, 울산 연안 해조류 매매계약을 일인이 독점함으로써 천여 명이 넘는 어민들의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하였다.²⁷⁾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일산리가 동면의 여타 지역보다 왜 항일정신이 강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이 성세빈의 10대 성장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본인들의 이주어업과 어장 침탈로 인한 충돌은, 성세빈 집안이 해산물 거래의 상업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증언대로라면, 한창 10대 후반의 시기에 있었던 성세빈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또 한말부터 시작된 일본인들의 어장침탈

고 한다.

23) 참고로 성수원의 거주지는 213, 223번지였다(각각 69평, 29평). 나중에 230번지로 거주지를 옮겼는데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230번지는 1912년 당시 지목이 田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230번지는 나중에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것이다.

24) 성수원 소유의 땅이 3,095평(서부동 561평, 일산동 1,157평, 주전동 1,377평), 田이 3,281평(방어동 754평, 일산동 2,527평), 墳墓地는 517평, 岱는 98평이었다.

25) 성세룡의 「경성제2고보 학적부」 참조. 한편 「학적부」를 살펴보면 부친 성수원의 신분은 常民, 직업은 농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성세룡의 입학 전 학력은 1918년 10월에 사립 개운학교를 2학년에 입학하고 1921년 3월에 4학년을 수료한 것으로 되어 있다.

26) 이 같은 추론이 가능한 이유는 증언채록 과정에서 성세빈이 서울의 보성학교를 다녔다는 증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아마도 서울이 아니라 1909년에 일산에 설립되었던 보성학교와 혼동을 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27) 『경남일보』, 1912. 2. 11 ; 『신한민보』, 1912. 7. 1.

과 횡포는 민족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면서 지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였다. 따라서 일본인과의 어업에서의 경쟁과 충돌은 동면지역 어민들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민족 의식을 각성시키는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1920년대부터 방어진을 중심으로 하는 일인 중심의 자본제적 어업관련 산업의 발달과 대규모 노동인구의 증가로 민족·계급적 모순이 중첩됨으로써 동면지역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이 활발히 펼쳐지게 된 주요한 이유가 되었다. 바로 이러한 배경들 아래에서 동면지역 민족운동의 지도자로 성세빈이 활동하게 되었다.

2) 성세빈의 민족운동 활동

성세빈이 27세가 되던 해 3·1운동의 만세 소리가 전국 곳곳에 울려 퍼졌다. 울산지역의 3·1만세운동은 세 지역에서 4월초에 일어났었다. 여러 증언에 의하면 성세빈이 울산 중구의 병영 3·1만세운동(4월 4일과 5일)에 참여했었다고 하나 현재까지 공식 기록상 3·1운동에 참여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²⁸⁾ 그러나 3·1운동이 일제의 식민통치에 항거하는 민족운동에 투신하게 된 직접적 계기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1929년 4월 21일 신간회 울산지회 설립 1주년 기념식 때 기념사업으로 울산군내의 민간교육공로자에게 표창을 하면서 밝힌 성세빈의 표창 사유는 다음과 같았다.²⁹⁾

“(성세빈)씨는 10년 전 朝鮮의 現狀을 慨歎하며 滿洲 各 地로 巡遊하다가 귀향한 후 東面 靑年會를 창립하는 일방으로 無産者를 集合하여 3년간 夜學에 교편을 잡고 있다가 私立 普成 學院을 건축하여 이래 9년 간 전력을 다한 결과 금일에는 2백여 명의 생도를 수용 교수 중”

위의 표창 사유를 전하는 신문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10년 전이란 1919년을 말한다. 이때 조선의 현상을 개탄하며 만주 급 각지로 순유하다가 귀향하였다고 하는 것은 1919년 3·1운동 이후 복잡하게 전개됐던 국내외의 정세를 관찰하고 일제의 탄압을 일시적으로 피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여겨진다.³⁰⁾

1920년 초에 귀향한 성세빈은 동면청년회(東面靑年會)를 창립하고 노동야학을 설립하여 무산자(노동자)들을 가르쳤다. 따라서 동면지역에 민족운동 단체로 청년회가 처음 등장한 것은 3·1운동 직후인 1920년 4월에 창립된 동면청년회였다. 동면청년회는 3·1운동 직후인 1919년과 1920년 당시 울산지역에서 면단위로 진행되고 있던 청년회 조직 결성 즉 병영청년회(1919년), 언양청년회(1919년), 울산청년회(1920년 2월), 우리청년회(온생청년회, 1920년 9월) 등이 결성되는 시기와 비슷하게 창립된 것으로 보인다. 1923년 2월 당시 울산 지역 내의 청년단체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³¹⁾ <표 4>를 보면 모두 6개 단체가 있었다. 앞

28) 최근에 동구의 남목에서도 3·1만세시위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자료상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만약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성세빈이 참여한 만세시위가 남목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29) 『조선일보』, 1929. 4. 26.

30) 성세빈이 3·1운동 직후 해외로 나간 것은 성덕영의 『日山普成學校歷概要』에도 언급되어 있다. 이 글에는 1919년 3·1운동 후 상해, 일본을 순회한 후 사립학교 설립을 決意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만약 윗글처럼 상해까지 갔었다면 임시정부와의 모종의 관련성도 고려해 보아야 하겠다.

에서 언급한 4개 단체와 동면청년회를 합하면 5개 단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표 4〉 1923년 2월 현재 경남지역 청년단체

부 산	의 령	마 산	창 녕	진 주	밀 양	양 산	통 영	울 산	고 성	동 래	사 천	김 해	남 해	창 원	하 동	산 청	거 창	합 양	합 천	합 계
4	3	2	3	5	5	4	4	6	1	12	4	8	3	6	1	2	1	2	3	79

그러나 현재로선 동면청년회의 창립과 그 주요 간부(회장 성세빈)와 활동이 어떠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위의 간단한 언급을 통해 보면 성세빈은 동면청년회를 조직함과 동시에 노동야학을 개설해 일산리와 방어진 등의 농민, 노동자들을 교육하는 활동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이때 같이 야학을 했던 이가 김천해일 것으로 추측된다. 성세빈은 1912년 김천해의 사촌누나인 김순희(金順姬:1890-1979)와 결혼을 하였다. 김천해는 방어리 출신으로 서울의 불교계통 학교였던 중앙학림을 졸업한 뒤 1920년 당시 고향인 방어진으로 돌아와 해산물상을 하면서 야학을 열어 지방의 농민들을 교육하였다³²⁾고 하는데, 이때 말하는 야학이 바로 성세빈의 노동야학을 말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더 이상 구체적인 자료의 미비로 인해 정확한 인적 구성과 조직 체계, 활동 내용 그리고 활동 범위와 지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성세빈은 노동야학을 3년 간 운영하다가 1922년 5월 1일에 사립 보성학교를 설립하여 교장으로 취임하였다. 이후 학교 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³³⁾ 이 시기 성세빈의 활동을 보여주는 자료는 1923년 7월에 동아일보 발기의 재외동포위원회에 3원의 금액을 기부한 것이다. 재외동포위원회에는 당시 울산지역 유지들의 대거 참여가 있었는데 동면지역에서는 성세빈을 비롯해 9명이 기부를 하였다.³⁴⁾

성세빈의 본격적인 사회운동에의 참여는 1925년부터이다. 즉 3·1운동 이후 학교를 세우고 운영할 때까지의 성세빈의 사상적 경향은 교육을 통해 실력양성을 한다는 민족주의적 시각을 가졌던 것 같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김천해를 비롯한 서진문을 통해 서서히 사상적 경향이 사회주의적 시각으로 전환되어 갔다. 서진문은 성세빈과 고종사촌간으로 20년대 초반에 일본에 가 있다가 동경대진재 때 일인에게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간신히 살아남아 귀국하였다. 그런데 서진문은 일본에서 김천해와 같이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1923년 여름 이후 일본을 근거지로 하였던 북풍파 계열의 운동가들이 귀국하면서 끼친 영향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다. 울산지역 북풍파 계열의 단체인 울산소작인회에서는 1923년

31) 『동아일보』 1923. 2. 21.

32) 김천해는 일제시대 일본지역 조선노동운동의 대부라고 불리웠다. 1921년 도입해서 노동운동에 투신, 재일본조선노동총동맹 중앙집행위원장, 조선공산당 일본총국 책임비서, 해방후 재일본조선인연맹 의장, 일본공산당 중앙위원, 이후 월북(강만길·성대경 역음,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131-132쪽 ; 김인덕, 『일제시대 민족해방운동가 연구』, 국학자료원, 2002, 12-13쪽). 한편 김천해가 일본에서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있을 때 일본까지 찾아가 면회를 하였다고 한다(성세빈의 『호적대장』 및 장세기 증언 참조).

33) 이 시기의 상황을 전해주는 자료들은 이현호, 「일제하 울산 동구지역의 항일운동」 『동구문화』 창간호(제1권), 울산동구문화원(부설) 동구지역사연구소, 2005 참조.

34) 『동아일보』, 1923. 7. 20, 25.

12월에 울산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사업을 실시하였는데 이때부터 성세빈은 북풍과 계열의 울산지역 인물들과 일정 정도 관계를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론이 가능한 이유는 울산지역 북풍과 인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강철(본명 강대곤)과 성세빈이 1925년부터 같이 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1926년에 정우회의 집행위원으로 같이 활동하기 때문이다. 또한 강철은 1924년 귀국할 때까지 일본에서 김천해와 같이 동경조선노동동맹회에서 활동하였다.³⁵⁾

1925년 동아일보 동면 분국장을 시작으로 사회운동에 뛰어들기 시작한 성세빈은 그해 10월 결성된 북풍과 계열의 울산군청년연맹의 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울산군청년연맹의 결성은 기실 울산군내의 운동선의 분열 속에서 이뤄진 것이었다. 즉 서울파를 중심으로 하는 울산청년연맹과의 치열한 경쟁과 다툼 속에서 이뤄졌는데 이는 단순히 울산군내의 분열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당시 민족운동 및 사회운동의 주도권을 선취하고자 하는 각 운동세력들의 전국적 상황이 지역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었다. 이때 성세빈의 활동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926년 3월 21일 울산군청년연맹의 주최로 병영청년회관에서 열린 남선옹변대회에 연사로 참여한 것이다. 성세빈의 “新生の 意義”라는 주제의 옹변이 옹변대회에 참여한 10여 명의 연설 가운데서 청중들로부터 가장 열광적인 환호를 받았다³⁶⁾고 한다.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세빈의 연설 실력이 상당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1926년 4월에는 울산군내의 사상단체로 자오회(子午會)의 결성에 가담해 집행위원(간사)이 되었다. 자오회는 기존 북풍과 계열의 울산지역 사상단체인 울산성우회(蔚山城友會)와 병영오일회(兵營五一會)를 통합·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의 수준을 문화운동이나 개량적인 민족운동에서 한 차원 더 끌어올리기 위해 즉, 좀더 계급적 대중운동에 맞는 노동·농민·청년·여성운동을 위해 울산 각 지역의 선진적인 활동가를 중심으로 결성된 단체였다. 따라서 자오회는 강령에서 사회주의적 색채를 선명하게 내세운 단체³⁷⁾였다. 성세빈은 이때 민족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사상적 전환을 하였던 것 같다.

한편 1926년 6·10만세운동의 과정에서 발생한 제2차 조선공산당사건을 계기로 4단체연합회인 정우회의 많은 회원들이 체포되고 활동이 불가능해지게 되었다. 정우회에서는 역량을 다시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새로운 인물들을 충원하였는데 이때 울산에서는 성세빈과 강철이 집행위원으로 참가하게 된다.³⁸⁾ 정우회에서의 활동은 지역차원의 민족운동과 사회운

35) 朝鮮總督府警務局東京出張所, 『在京朝鮮人狀況』, 1924, 37-52쪽.

36) 『조선일보』, 1926. 3. 25. 이 옹변대회는 울산군청년연맹의 일종의 세를 과시하는 의미가 있었다. 또한 당시 울산기자단 주도로 진행되었던 울산지역 사회운동선의 합동 통일에 대한 반응이기도 하였다.

37) 박철하, 『1920年代 社會主義 思想團體 研究』, 숭실대박사논문, 2003, 310쪽. 강령은 다음과 같았다. 一. 我等은 社會科學的 敎養과 社會進化的 法則에 依한 經濟問題에 置中함, 一. 我等은 大衆運動의 部門이 되는 勞農靑年女性의 智的 敎養을 圖하며 都市와 農村의 協同을 期함(『조선일보』, 1926. 4. 14). 자오회 입단 인원은 23명으로 임원 구성을 보면 신영업(언양), 조형진(울산), 강철(병영), 이규경(상남), 성세빈(동면), 박문한(대현), 장인두(동면) 등으로 울산 각 지역의 대표자로 망라되어 있었다.

38) 1926년 8월말 정우회에서는 6·10만세운동의 여파로 2차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운동가들의 대검거의 여파로 사회운동이 침체되자 이를 수습하기 위한 일환으로 과거 북풍파를 중심으로 집행위원 보결선거와 회무를 정리하고 국면수습을 꾀하였다. 즉 이때 정우회는 과거 북풍파 세력이 다수를 차지했다(박철하, 위의 논문, 2003, 238-239쪽 ; 『동아일보』, 1926. 9. 5, 30, 11. 6).

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성세빈이 전국적 차원의 단체에서 활동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당시 성세빈의 울산지역에서의 지위와 활동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정우회의 집행위원이 된 성세빈은 11월초에 사무분장에서 회계부 위원으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1927년 2월 정우회 해산과 더불어 신간회의 민족협동전선체 결성과 6월의 조선청년총동맹의 신운동방침에 의한 운동선의 통일이 논의될 때 성세빈의 지도하에 있던 5월청년동맹은 울산군내의 청년동맹과 신간회 조직 건설을 주도하게 된다.³⁹⁾ 울산지역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의 통일을 위한 첫 모임은 1927년 10월 30일 방어진 혁노회관에서 개최된 전울산사회단체간담회였는데 주최 단체는 성세빈이 집행위원장으로 있었던 5월청년동맹이었고 참가 단체는 8개 단체였다.⁴⁰⁾ 간담회를 진행한 임시 집행부의 임시 의장은 성세빈, 서기는 신영업, 강철이었다.⁴¹⁾ 임시 의장을 맡았다는 것은 울산지역 운동선 통일의 문제에서 성세빈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12월 12일에 울산청년동맹, 13일에 신간회 울산지회 설치대회를 열고자 했던 열성적인 노력은 일제 경찰의 탄압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 설치대회를 재개하기 위한 여러 차례의 교섭과 신간회 본부에서 간부를 파견하여 경남도 경찰부와 교섭한 결과 신간회 울산지회는 1928년 3월 17일 울산청년회관에서 설립되었는데 성세빈은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하지만 울산청년동맹은 5월 16일에 다시 개최된 창립대회조차 진행 중에 경찰의 중지 명령으로 성립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핵심간부 3명이 체포⁴²⁾되고 말았다. 이후 울산청년동맹의 결성을 촉구하는 신간회 울산지회 및 여러 단체의 노력이 있었지만 일제 경찰의 계속된 금지 명령과 탄압⁴³⁾으로 인해 1년 반 동안이나 결성이 지체되다가 1929년 6월이 돼서야 창립대회를 열 수 있었다.

신간회 울산지회가 설립된 이후 성세빈은 주로 신간회 활동에 주력하였다. 이는 울산청년동맹이 결성되지 못함으로써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였지만 또 다른 이유는 성세빈의 나이가 연령제한에 걸린 문제이기도 하였다. 당시 울산지역에서는 대체로 30세를 상한으로 청년단체 가입 기준으로 삼았고, 특별회원의 경우 35세까지 인정되고 있었다. 신간회 울산지회에

39) 신간회 창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정우회 선언'이었다. 일종의 방향전환론이었던 정우회선언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의 일종의 공동전선을 결성하도록 하였다. 당시 울산의 민족·사회운동가들도 정우회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확인된 사람은 강철, 성세빈, 조형진, 이규경, 신학업 등이다(京鍾警高秘 제3870호, 「정우회 임시총회에 관한 건」 『사상문제에 관한 조사서류(1)』, 1926).

40) 『동아일보』, 1927. 11. 4 ; 『조선일보』, 1927. 11. 14, 23. 참석한 울산지역 청년단체는 12월 13일 개최될 울산청년동맹발기회와 창립총회의 발기단체가 되었는데 울산청년회(이하 청년회 생략), 병영, 범서, 대현, 웅촌, 온양, 언양, 5월청년동맹이었다.

41) 전울산사회단체간담회에는 다른 지역 사회운동 대표들인 양산의 전혁, 김해의 노백용, 재일노총의 서진문 등이 내빈으로 참석하여 축하와 감상담을 하여 이채를 띠었다(『중외일보』, 1927. 11. 7). 이 가운데 노백용은 김해의 대표적인 북풍과 계열이었으며 1926년 12월 조선공산당 제2회 당대회에 경남 대의원으로 참가 및 1927년 11월 현재 조선공산당 경남도책이었다(김준엽·김창순 공저, 『韓國共產主義運動史』 제3권, 1973, 210쪽 ; 임경석, 「김철수와 조선공산당 제2회 대회」, 『역사비평』 2002년 가을호, 2002, 182쪽).

42) 昭和 4년 刑決 제347호 判決文(국가기록원, MF 93-796). 판결과 관련된 인물은 강철, 조형진, 권우락으로 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 초반까지 울산지역 사회운동의 핵심인물들이었다.

43) 1928년 하반기부터 1929년 상반기까지 일제 경찰의 탄압 강도는 매우 높았다. 당시 울산경찰서는 1928년도의 범죄 건수를 밝히는 가운데 이전에는 없었던 사상범죄가 5건이나 되는 고로 울산에서도 사상문제가 복잡해지는 표징이라고 하였다(『조선일보』, 1929. 1. 26).

서의 활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28년 5월 15일에 열린 임시대회에서 본부 대표회원으로 선출되었고, 12월 27일 제1회 정기대회에서는 지회의 핵심 업무 부서인 서무부 총무 간사이자 본부 대표회원으로 선출되었다. 1929년 8월 30일 개최된 임시대회와 1930년 3월 16일의 제2회 정기대회에서는 감사위원장 및 본부 대표회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그리고 신간회 울산지회 동면분회에서 활동한 것을 살펴보면, 1929년 9월 19일 동면분회 설립 때 감사위원을 맡았고, 1930년 12월 18일 제2회 정기대회에서 분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일제는 이러한 성세빈의 활발한 활동에 대해 탄압을 가하기 시작했는데, 그 계기가 된 사건이 서진문의 사망사건이었다.⁴⁴⁾ 1928년 10월 어대전 예비검속에서 체포된 서진문은 일본에서 고문과 단식 투쟁 끝에 석방 다음날에 사망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서진문의 장례식이 1929년 1월 12일 고향인 일산진에서 치러질 때 각 단체의 연합으로 여러 동지가 서로 상여를 메고 운구하였고 묘 앞에 비석을 세웠다. 증언에 의하면 묘 앞에 세운 비석의 비명-故 徐鎭文君之墓 1928年 11月 日 同志立-은 성세빈이 직접 쓴 글씨로 일산진 바닷가에서 월정사 옆 묘소까지 직접 돌을 안고 운반해 온 것이라고 한다.⁴⁵⁾ 일제는 이 사건과 관련된 성세빈과 사립 보성학원을 폐쇄하는 것으로 탄압을 하였고, 결국 성세빈은 교장직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한편 1929년 3월 24일 5월청년동맹의 제4회 정기총회를 보성학교에서 개최하여 집행위원을 개선할 때 집행위원장이 동생인 성세룡으로 바뀌었다. 성세빈이 청년운동의 일선에서 물러나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앞에서 언급한대로 연령제한이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제 청년운동은 적호소년회의 소년운동을 통해 성장한 인물들이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는 5월청년동맹에서도 세대교체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후 5월청년동맹은 1929년 6월 16일에 울산청년동맹 동면지부로 전환되었다.

동면과 울산지역 민족운동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던 성세빈은 1931년 상반기에 신간회가 해소된 뒤부터는 주로 경제 분야에서 활동을 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방어진주조회사에서의 활동이다. 1931년에 감사가 되었다가 1932년 7월부터 1938년 사망 때까지 전무이사로 있었다. 이때의 성세빈을 “社會의 師表”로 부른다는 당시 신문기사가 전해지고 있다. 즉 성세빈을 당시 사회에서 학식·덕행이 높아 남의 모범이 될 만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확인할 수 사실로 1933년 11월에 있었던 방어진어업조합 조합원대회에서 임시의장을 맡은 것을 들 수 있다. 방어진어업조합의 일본인 이사가 기존 관행대로 대의원을 뽑는 것을 무시하고 일본인에게 유리하게 대의원을 새로 뽑으려고 하자 조합원인 어민들이 이를 반대하며 대회를 개최하고 임시의장으로 성세빈을 뽑은 것이다. 성세빈은 “漁業組合 使命을 論하여 今後 議員 改選에 及함”이라는 제목으로 열변을 토하였다고 한다.⁴⁶⁾

성세빈의 1930년대 활동을 추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32년 1월에 설립된 방어진

44) 서진문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조된다. 김인덕, 『在日朝鮮人 民族解放運動 研究』, 성균관대박사논문, 1995 ; 김문술, 「서진문선생의 항일운동」 『동구문화』 창간호(제1권), 울산동구문화원(부설) 동구지역사연구소, 2005.

45) 『조선일보』, 1929. 1. 20 ; 서정자, 『우리 徐鎭文 아버지를 回顧한다』, 1997 참조.

46) 東亞經濟時報社, 『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1, 1933 ; 『동아일보』, 1932. 11. 6 ; 『조선일보』, 1933. 12. 4 ; 제국흥신소부산지소편, 『실업요록』, 제국흥신소, 1935, 14-15쪽.

소비조합에서 전무이사를 맡았다. 소비조합은 1920년대 후반부터 크게 유행한 협동조합운동의 일환으로서 소비품 공동구입 등 일종의 경제자립운동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방어진소비조합은 그리 오래 동안 존속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성세빈은 1932년부터 방어진공립보통학교건립기성회 위원장을 맡아 1934년에 동구 지역의 2번째 공립학교인 방어진공립보통학교(현 화진초등학교)가 설립되게 만들었다. 1937년도에 방어진공립보통학교 기성회장을 맡고 있었다는 증언도 있다.⁴⁷⁾

성세빈은 1938년 6월 25일 46세의 일기로 사망하였다. 가족들의 증언에 의하면 분사(憤死)였다고 한다.⁴⁸⁾ 성세빈의 장례식 장면을 보여주는 소중한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어 과거를 현재로 불러들인다. 사진에는 ‘創立主의 告別式, 故 成世斌과 普成學院’이라는 글귀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한편 장례식 때 서울에서 여운형이 직접 참석하였다는 증언⁴⁹⁾은 성세빈 말년의 사상적 변화를 일견 가늠하게 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성세빈이 신간회의 해소에 반대하였다는 증언을 참조한다면 계급적 입장을 강조하는 새로운 운동방침에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고, 결국 새로이 성장한 세대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중도적인 입장에서 경제활동에 치중하였다고 하겠다.

4. 맺음말

일제시대 폭압적인 식민통치 하에서 민족운동가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스스로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었다. 이를 마다하지 않은 성세빈의 삶은 그 당시의 표현대로 “사회의 사표”로서 지금도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할 자세라고 생각된다.

울산 동면지역에 성세빈이 설립한 사립 보성학교는 단순히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기관만은 아니었다. 일제시대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한 동면지역의 민족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근거지였고 인적 저수지 역할을 하였다. 성세빈은 이를 바탕으로 일제시대 특히 1920년대 동면지역 민족운동을 위한 일관된 조직체계 즉 소년운동-청년운동-신간회운동으로 이어지는 민족운동을 지역사회에 구축하였다. 이 결과 성세빈은 동면지역을 넘어서서 전울산지역에서도 대표적인 민족운동가로 손꼽혔으며 또한 전국 차원의 활동도 활발히 펼치게 되었다.

성세빈의 민족운동은 울산 동면지역의 근현대 역사에서 이제 제대로 조명받아야 한다. 그

47) 『동아일보』, 1932, 2. 2 ; 김병희, 『80 인생을 회고한다』, 2000, 72쪽 ; 성덕영의 『日山普成學校歷概要』에서는 1931년에 성세빈이 화진교(방어진공보교)건설위원장을 스스로 맡아서 학교를 건립하게 됐으며, 漁場 2개, 精油所, 酒造會社를 경영하였다고 한다.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성세빈 집안의 경제력이 상당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48) 만약 분사였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혹시 중일전쟁이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1937년에 시작된 중일전쟁은 1938년에 들어서면서 사실상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는 일본군이 승리한 것으로 비쳐졌다. 따라서 많은 조선의 지식인과 민족운동가들이 자신의 신념과 지조를 버리고 궤절하여 친일파의 길로 들어서게 된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49) 성덕영, 『成氏系圖』 및 장세기 증언 참조. 동면지역 관련자에 대한 증언채록 과정에서 일제말기 여운형과 관련된 증언이 자주 나왔다. 해방직후 방어진에서 이틀 만에 건국준비위원회가 세워졌다는 기록을 통해 유추해 보면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래서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하나의 모범으로 재창조되어야 한다. 역사는 기록되어야 하고 그리고 후세에 의해 평가받아야 한다.

<성세빈 선생 연보 정리>

연도(나이)	월/일	활동내용
1893	2/22	동면 일산리 40번호(230번지) 출생
1909~1911 (17세~19세)		울산사립동면보성학교 재학 가능성 높음
1912(20세)	3/18	김순희와 결혼(김천해의 사촌누나)
1919(27세)		3.1운동 가담, 만주·상해·일본 순유 후 귀향
1920(28세)	4/	동면청년회 창립-회장, 노동야학 개설
1922(30세)	5/1	사립 보성학교 설립-교장 동면청년회 → 동면구락부 개칭-회장(서무부)
1923(31세)	7/25	동아일보 발기 재외동포위문회 3원 기부
1925(33세)	5/29 10/17	동아일보 동면분국-분국장 울산군청년연맹 창립총회 참여-규약기초위원·집행위원
1926(34세)	3/21	울산군청년연맹 주최 남선웅변대회 연사로 참가
	4/10	울산지역 사상단체 자오회 참여-집행위원(간사, 검사위원)
	5/1	동면구락부 → 5월청년동맹 회제 변경-집행위원장
	8/19	적호소년회 강연회 강연-인생의 분기점에 있는 소년을 유의하라
	9/28	전국단위 사상단체 정우회 참여-집행위원·회계부 위원
1927(35세)	10/30	전울산사회단체간담회-임시의장
1928(36세)	3/17	신간회 울산지회 설립-부회장·서무부 간사
	5/15	신간회 본부 대표회원 선출
	11/17	서진문 사망(고종 사촌)
	12/27	신간회 울산지회 서무부 총무간사·신간회 본부 대표회원 선출
1929(37세)	3/24	5월청년동맹 집행위원장 사퇴 → 성세룡 선출(동생)
	3/31	사립 보성학교 교장 사퇴, 신임 교장 이영춘
	4/21	신간회 울산지회 민간교육공로자표창식 표창상
	5/5	사립 보성학교 학부형 및 유지제씨 표창식 표창상
	6/16	5월청년동맹 → 울산청년동맹 동면지부 전환(집행위원장 성세룡)
	8/30	신간회 울산지회 검사위원장 선출
	9/19	신간회 울산지회 동면분회 설립-검사위원
1930(38세)	3/16	신간회 울산지회 검사위원장·신간회 본부 대표회원 선출
	12/18	신간회 울산지회 동면분회 분회장
1931(39세)	3/	방어진주조회사 감사
1932(40세)	1/24	방어진소비조합 전무이사
	7/	방어진주조회사 전무이사
		방어진공립보통학교건립기성회 위원장
1933(41세)	11/26	방어진어업조합 조합원대회 임시의장(일본인 이사 횡포에 반대)
1934(42세)		방어진공립보통학교(현 화진초등학교) 기성회장
1936(44세)	10/28	부친 성수원 사망
1938(46세)	6/25	사망(분사?), 장례식에 여운형 참석
1940	9/	성세빈 선생 송덕비 건립(옛 보성학교터)